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10. 21.(월) 10:00

5분 자유발언



논산시의회 의원 최정숙

「가야곡농공단지 주변 환경오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제안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논산시의회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시를
위하여 자치와 분권을 시정철학으로 지금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황명선 시장님,

그리고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기는 태풍 타파, 링링, 미탁이 지나간 피해가 큰데다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일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하여,

예방차원으로 각종 축제 및 행사등을 취소 및 방역활동을 하는 등 어려운 시점에서 환경적인 문제는 어느 때 보다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를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이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에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 가야곡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전의 일이라 세월의 흐름 속에 아무 근거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나오는 과정 속에 인근 주변 주민들은 원인모를 기침과 폐의 질환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됩니다.

또한 농공단지 내 일부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인 분진가루와 미세먼지 및 씻가루악취 등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각합니다.

밤이 되면 기계 소음공해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민한 마을 주민들께서는 이사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제십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을 주민들의 외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활용품수집업체까지 동네입구에 있어 정관을 흉하게 할뿐 아니라 심한 악취까지 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측정과 미세먼지 측정 등 정확한 역학조사와 함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이 점에 대해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시설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시는 농촌의 공기 좋고 살기 좋은 포근한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향 마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논산시의회 의원 최정숙